



신일꿈여울

<http://sinil-sh.es.kr>

(우) 429-824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7번길 12

☎070-7097-2804

◆펴낸 이: 이홍재 교장선생님

◆도운 이: 박민래 교감선생님

◆만든 이: 박채연 선생님

재난대응훈련으로 안전한 학교만들기



6월 20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

1~6학년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실내안전교육과 화재를 가장한 대피 훈련으로 진행됐다. 경보가 울리자 코와 입을 손으로 막고 계단을 통해 교실 밖으로 신속히 대피했다.

여러 교사들의 안내에 따라 신일 어린이들은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받고 화재를 진압하는 연습을 했다.

꾸준한 재난대응훈련의 실시로 안전한 학교, 나아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1학기 뒤돌아보기

3월 3일	입학식
3월 6일	1학기 학급임원 선거
3월 7일	진단평가(2~6)
3월 18일	전교어린이회 선거
3월 19일	학부모 총회
4월 1,2주	저학년 예절교육주간
4월 4일	과학의 날 행사
4월 7일	6학년 수학여행
4월 14일	장애인권교육 주간
4월 23일	청소년 단체 선서식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
5월 12일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5월 19일	체질, 체격검사
5월 26일	다문화교육 체험주간
6월 1,2주	고학년 예절교육주간
7월 11일	한자인증평가
7월 23일	여름방학식

‘교육의 첫 만남’

- 학부모초청 수업공개 및 학부모 총회 -

지난 3월 19일에는 2014학년도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의 행사는 수업 공개 및 학부모회 조직, 돌봄교실 학부모 간담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공개가 끝난 후 각 교실에서는 담임교사와의 상담시간을 마련, 교육 방침과 학급운영계획 및 상담을 통해 자녀교육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수업공개 및 학부모 총회는 교육 공동체 의식의 강화와 학교, 가정의 연계를 꾀하는 첫 만남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



미리보기



● 2면 - 교장선생님 말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 3면 - 학생회장, 학생부회장의 하고싶은 말

● 4면 - 신일교육의 이모저모

● 5면 ~ 11면 - 신일 학생들의 숨쉬마당





이홍재 교장선생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추진력을 가진 “신일” 어린이

시흥신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학생 여러분들이 참된 삶을 지향하는 건전하고 도덕적인 사람,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 적응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학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학교의 주인은 바로 학생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학습활동의 주체도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주는 조력자요, 안내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들은 지적 호기심과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 학급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의 특기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는 형식적인 학벌보다는 창의력, 정보관리능력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실질적인 능력위주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신만이 잘 할 수 있는 타고난 소질과 특기를 최대한 살리고 창의력을 길러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서 일류가 되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도 이것만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내 자신을 내가 먼저 좋아하고 존중하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항상 지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추진력을 길러야 합니다. 진정한 패자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포기하는 자입니다.

항상 선생님들을 존경하면서 가르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당부합니다.

꿈과 진로를 생각하는 정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김수면 학교운영 위원장님

진로란 무엇일까요? 나의 꿈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진로란 우리 인생에서 평생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것 즉, 직업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직업이 곧 나의 꿈이 되기도 하겠지요.

평균수명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는 평균적으로 70세까지도 일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에서도 진로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직업에 대한 인식의 폭은 좁아서 직업의 종류에 대해 20가지도 채 써내려가기 힘들어합니다.

여러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직업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 직업의 종류와 다양성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여러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직업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 직업의 종류와 다양성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이렇게 진로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진학만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100년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때문에 초등학생인 우리 신일어린이들은 진로에 대해 인식하는 것,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른이 되었을 때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로설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앞으로의 나의 멋진 모습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신일어린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교회장 윤성연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시흥신일초등학교 전교어린이 회장 윤성연입니다.

하루하루 녹음이 깊어가는 모습에 여름이 다가움을 느낍니다.

무투표 당선으로 전교회장이 되어 설레임과 두근거리는 맘으로 학우여러분과 신일초등학교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조금이나마 보람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곧 돌아올 여름방학을 생각하면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 초등학교의 마지막 시간이란 생각에 아쉬움이 더욱더 마음속에 자리 잡는듯 합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거미가 거미줄을 쳐 벌레를 잡듯이 신일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도 계획과 준비를 올 여름 방학에 함께 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저는 마지막 초등학교 여름방학을 우선 친구들과 더욱 추억을 만들것이며 작은 계획을 준비해 알차게 보내려 합니다.

시흥신일초등학교여러분!

우리는 모두 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한 준비 된 어린이들입니다.

여름방학이라는 시간을 준비와 계획으로 보내며 보람있는 시간으로 저와 학우여러분 모두에게 되돌아 올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까요?

무더운 여름 모두가 건강히 잘 보내고 다시 만납시다.

시흥신일초등학교 화이팅!



전교부회장 송진명

깨끗한 신일초등학교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전교부회장인 송진명입니다. 저는 신일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주말을 보내고 학교에 나오면 학교 정문과 운동장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청소 당번이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하루에 한 번 청소를 하는데도 한 봉지 이상의 쓰레기를 줍게 됩니다. 매일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신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학교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그런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교실 바닥이나 복도, 계단에 그냥 버리고 가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를 발견하면 반드시 주웁시다. 자기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고 쓰레기를 발견하고도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쓰레기를 발견하면 바로 줍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 학교 안과 밖이 훨씬 더 깨끗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쓰레기 버리지 않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합니다. 일주일동안 쓰레기 버리지 않기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학교를 깨끗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만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도와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학교 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함께 참여하여 깨끗한 신일초등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014학년도 학급 임원 명단

	반장	회장
2학년	안경훈, 박호빈, 강수아, 윤다인, 성채미	
3학년	황윤주, 김태희, 한수인, 김현중, 최소진	정민서, 김보승, 김은총, 유일환, 고은지
4학년	조성화, 이해준, 성도희, 이소담, 이정연, 임서림	유서연, 백승환, 안예빛, 최서영, 방준겸, 김민준
5학년	이우혁, 이해원, 박태환, 김규태, 양현준, 우지수	김주형, 오가현, 문가은, 옥건희, 길혁주, 황경윤
6학년	박경옥, 유명환, 양인모, 변정현, 이정필	박병찬, 송진명, 배민서, 이정민, 송도현

신일교육의 이모저모



입학식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1학년 5반



1학년 6반

3월 3일 월요일 본교 체육관에서 시업식 및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신입생들과 학부모, 재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초등학생으로서 첫 출발을 시작한 신입생을 마음껏 축하해주는 소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축구부 폭력예방교육



축구부 학생 전원

4월 11일 금요일 오후 아띠도서관에서 시흥신일초 축구부 학생 전원 (25명)을 대상으로 청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체육대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월 30일(수)부터 5월 2일(금)까지 3일간 전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학년의 특성에 맞게 공굴리기, 투호 던지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여 신일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1, 2학년 학생

5월 30일 시흥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하여 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안전한 교통생활을 합니다.

1학년 솜씨마당



1번 김은빈 [러브까페]



2번 이채현 [엄마]



3번 오유진 [벌날의 풍경]



4번 박시운 [초록집]

[아름다운 소리]

1번 채한결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뽕뽕 사람이 땀과 귀 귀는 소리
 술술 시원한 바람 부는 소리
 청병청병 물장구 치는 소리
 부릉부릉 자동차 시동기는 소리
 청썹청썹 파도 치는 소리
 왁자지껄 우리반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

[나의 엄마를 읽고]

2번 이시우
 나의 엄마는 카멜레온이다.
 나의 출을 보면 웃고 나의 표정을
 보고 또 한번 웃으신다.
 나의 엄마는 무서운 마귀다.
 O가 적고, X가 많은 날 마귀가 된다.
 나의 엄마는 저녁이 되면 청사가 된다.
 맛있는 반찬을 양양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미있는 동화책도 쿨쿨
 잠이 오게 잘 읽어주신다.
 나의 엄마는 카멜레온 같다.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님께]

3번 김건우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에 살고 있는 신일초등학교 1학년 3반 김건우예요.
 영라전 이순신 장군의 고장 통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장군님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저는 통영에 가보진 못했지만, 장군님께서 활쏘기를
 연습하신 한산정과 왜군을 크게 무찌르신 한산도 앞바다, 웅머리를 한
 거북모양의 거북선을 책으로 보면서 이순신 장군님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용감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게요.^^
 나중에 장군님이 계셨던 통영에 가고 싶어요.
 통영에 가게되면, 충무김밥도 먹고 거북선도 타 볼게요.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시흥에서 건우 올림.

[아빠와 함께하는 과학여행]

4번 김도훈

1. 준비물 : 적색양배추, 비누, 오렌지주스, 냄비, 유리컵 3개
2. 실험준비 :
 (1)적색양배추를 잘라 물과 함께 끓여주기
 (보라색 물이 생기면 뜨거운 물!! 식혀서 준비하기)
 (2)비누를 녹여 미끌미끌 비눗물 만들기
 (3)오렌지주스 준비하기

3. 실험방법 :
 (1)적색양배추의 보라색 물과 흰색 비눗물을 섞어주면 염기성이라
 초록색 물로 변하고
 (2)적색양배추 보라색물과 오렌지주스를 섞어주면 산성이라
 빨강색 물로 변해요. 실험성공!!

4. 도훈이의 느낀 점 :
 아빠와의 실험으로 서로 다른 색으로 변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색으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주스는 산성인데 포도는 어떻게 더 실험해보고 싶다.

[소원을 비는 뱀을 읽고]

5번 김지훈

오제브라는 할아버지와 레오니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맨날 불평만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정날 뱀에 요정의 왕과 요정의 여왕이 찾아와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원을 빌어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번째 손님이 찾아오자 왕인 줄 알고
 장해주었는데 왕이 아니라 그냥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세가지 소원을
 이루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맨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왕과 여왕에게 이상한
 소원을 빌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소원을 사양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에게]

5번 변주찬

토끼와 거북이 만다툼을 하다가 토끼가 잘 달린다고 장난치하자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신청했어요. 거북이는 껍을 내어서 달리기
 코스를 당근 뱀을 지나가게 해서 토끼가 매게 만든 것 같아요.
 느리지만 쉬지 않고 달리더니 드디어 끝인~. 거북아, 승리를 축하해.
 너의 지혜도 칭찬해! 토끼야! 넌 빠르지만 친구들한테 장난치 하지 않고
 당근이 좋아도 적당히 먹으면 잠자지 않고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넌 성실해지고 친구들한테도 친절 했으면 좋겠다.
 나도 거북이 너처럼 부지런하고 너의 지혜를 본받고 싶어.
 그리고 둘이 서로 화해 했으면 좋겠어. 친구 주찬이가.



6번 노승현 [보트쇼]



6번 임다희 [캐릭터]



2학년 솜씨마당



1반 이지선 [상상의 동물]



2반 유수민 [여름풍경]



3반 김가훈 [여름바다]



4반 김하은 [여름]

[태권도]

1반 임서율

태권! 태권!
신나는 태권도

태권도를 하면
힘이 솟고 재미있네

끝나면 1품 띠도 받고
폭탄 피구도하네

이겨라! 이겨라!
피해라! 피해라!
신나는 태권도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신 날]

2반 조현주

학교와 학원이 끝나고 집에 왔더니 엄마와 아빠가 계셔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엄마가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다. 먹는데 너무 매워서 물을 많이 먹어서 물배만 가득 채웠다. 그때 엄마가 만들어 놓으신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매운 것이 사라졌다. 맛이 있어서 엄마께 더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안주셨다. 속마음은 안 먹고 싶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가 3개나 썩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또 고생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지금부터는 양치질을 열심히 해서 이가 썩지 않도록 해야겠다.



5반 지혜령 [우리 온하]

[전통예절 체험학습 보고서]

3반 장서율

4월 11일 예정실에서 전통예절체험학습을 하였다. 난 평절, 큰절이 있는 걸 알았는데 평절이 좀 어려웠고 큰절을 쉬었다. 예쁜 한복을 입고 예절을 배우니 더 기분이 좋았다. 민속놀이로 투호놀이도 했는데 잘 들어가지 않아 조금 어려웠다. 팽이치기도 하였는데 나는 팽이가 없어서 친구의 팽이를 빌려서 놀이를 하였다. 좀 부끄러웠다. 팽이를 많이 가지고 놀지 못해서 아쉽다.

[인도네시아 짜아짜아마을 어린이들에게]

4반 송지후

짜아짜아 친구들 안녕?

나는 한국에 사는 신일초등학교 2학년 송지후라고 해. 인도네시아는 계절이 여름만 있어 수영도 많이하고 좋겠다. 짜아짜아 친구들은 더운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과학적인 글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칭찬해주었지. 한국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선진국에 가까운 것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며칠 후엔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는데, 우리나라도 출전하게 되어 응원을 열심히 하려고 한단다.

한국은 4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나는 하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을 좋아해.

짜아짜아 친구들이 겨울에 놀려오면 하얀 눈 위에서 썰매도 타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많이 만들 수 있을거야 꼭 놀러 오기를 바래.....

짜아짜아 친구들 잘 있어. 안녕!

[흔들흔들 내 앞니 절대 안 빼]

5반 함태희

룰라는 이빨이 흔들흔들 거리는게 처음이예요. 이빨이 흔들리는데 이빨을 안뺐어요. 로타가 룰라 집에와서 룰라의 이빨을 관찰했어요. 로타가 룰라의 이빨이 흔들릴 때, 이빨을 빼고난 후 이빨을 베개 밑에 두고 일찍 자면 이빨 요정이 와서 이빨을 가져가고 대신에 동전을 준다고 전해주었어요. 나도 이빨이 흔들릴 때 빨리 빼서 베개 밑에 두면 이빨요정이 가져가서 동전을 줄까? 궁금해요. 이빨을 빼 때 마다 나는 긴장되고 무서워요. 하지만 왠지 이빨을 뺀 후에는 후련하고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이빨 요정이 나에게 동전을 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룰라처럼 이빨을 빼서 베개 밑에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개 밑에 두지 않으면 이빨 요정이 이빨도 가져가지 않고, 동전도 가져가지 않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물론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나는 동전이 좋아요. 이제 이빨 빼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3학년 솜씨마당



5반 김가온 [풍경]



2반 전태완 [해바라기]

[통일 2행시]

4반 김정연

통 :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
 이산 가족도 만나고 38선도 치워지고
 지금보다 땅도 넓어지고
 일 : 일을 해동해서 하면 돈도 더 벌고
 새로 통일의 국기도 만들 수 있네
 아~ 통일이 되면 참 좋은일이 많구나

[당]

3반 이한별

밤마다
 밤마다
 뜨는 달
 초승달 반달
 매일매일 뜨는 달
 어두운 골목을 비춰주는 달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는 달

[터널을 읽고]

5반 고은지

1반 정민서

우리교실에는 배추흰나비 번데기와, 장수풍뎅이 그리고 달팽이가 살고 있다.
 그동안 곤충들을 관찰하면서 배추흰나비는 다리가 6개이고 날개가 2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번데기일 때 배추흰나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었는데 이제 밖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다.
 "채웁아 배추흰나비 너무 예쁘다"
 "응, 우리 장수 풍뎅이도 보자"
 "그래, 근데 장수풍뎅이가 땅속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그럼, 달팽이 보자"
 "그런데, 달팽이는 살짝만 달아도 왜 더듬이가 내려가까?"
 "근데, 똥이 너무 크고 웃기다. 똥이 달팽이 집 천장에 매달려 있어"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곤충들을 바라보며 소곤거린다.
 이제 배추흰나비는 다 자라서 날려 보내주었다. 아직 번데기가 남아 있으니까
 아름다운 배추흰나비를 더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장수풍뎅이는 내일 또 관찰해야 되겠다.

로즈에게
 로즈야, 안녕!! 나는 은지야.
 나도 너처럼 남매란다. 우리도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금방금방 화해해.
 난 우리 오빠가 너무 좋은데,
 오빠가 내 맘을 몰라주고 내게 함부로 대할때면
 너무너무 밉고 싫을때가 있단다
 그렇지만 오빠랑 화해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너도 그렇지?
 나는 이책의 제목을 터널 대신 < 화해의 문>이라고
 바꾸고 싶어
 터널이라고 하면 어둠을 생각할 수 있지만
 터널 밖으로 나가면 밝은 세상이 나오잖아?
 로즈 너도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오빠와 화해하고
 행복해진 것처럼 나도 오빠뿐만 아니라 우리반
 모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행복한 은지가 되고싶어

[고구마는 맛있어]

2반 권호승



고구마의 성장과정은 힘들었으나, 수확할 때 맛있는
 고구마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듯이 내 꿈도 키워가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한다면 달콤한 꿈을 꿀 수 있겠지.
 나는 가수, 개그우먼이 되는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앞으로
 일본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외국생활에서
 일본인과 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반 자연예술작품



4학년 숨씨마당

[여우의 전화박스]

1반 정지현

나는 어머니가 이 책을 사주셔서 읽게 되었다. 엄마여우와 어느 남자아이의 따뜻한 이야기다.
전화박스가 있는 어느 산기슭에 엄마와 아기 여우 둘이서만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아기여우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다.
그날 이후부터 엄마여우는 슬픔의 나날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전화박스
구석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보고 달려가 보니 여러 꼬마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멀리 있는 엄마와 통화를 했다. 엄마는 몸이 아파 도시에
큰 병원에 가 게신 모양이었다. 어느 날 전화박스가 고장나 있었고
통화를 못할 꼬마아이를 걱정하고 있는 엄마여우의 간절한 마음이 통해서
엄마여우가 전화박스로 변할 수 있었다. 엄마여우는 가까워서 꼬마아이의
냉새도 달고 볼 수도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꼬마는 도시로 또 떠나게 되었고 엄마여우는 또 혼자가 되었다.
고장 난 전화박스는 외로운 엄마여우를 위해 온힘을 다해 불을 밝혀주었고
아기여우를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주었다. 이 글을 읽으면 마음이
안타깝고 슬펐다,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함께 있는 행복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소연이의 일기]

2반 이서진

어제는 선생님께서 소연이의 일기를 읽어 주셨다. 잘 썼다고 칭찬을 하시며 말이다.
소연이의 일기를 들고 나는 내 일기와 비교해 보았다.
소연이는 글씨도 잘 쓰고 시간이 흘러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쓰는데
그에 비해 나는 '예이, 대충 쓰면 어때? 어차피 잊어버리는데.....?'하며 대충대충
쓰려고 한다. 나는 반성했다. 시간이 지나서 '아, 그때 그랬지?'하며 기억하고 생각
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일기인데 나처럼 대충 대충 쓰면 의미가 없겠구나 하며 말이다.
앞으로는 소연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자세하게 하루 동안 기억에 남는 일들을 써서 꼭
선생님께 칭찬도 듣고 내 글쓰기 실력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기념으로 공책도
바꾸고 열심히 써야겠다. 그래서 내 일기장을 오랫동안 간직하여 추억으로 남기고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하며 재미있게 읽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내 결심이 바뀌지 않도록 나와의 게으름과 싸워 꼭 이겨야지.

[지우개]

3반 이하연

지우개는 글씨를 지울 수 있지만
나의 괴로움은 지울 수 없다.

내가 지우고 싶은 것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엄마의 잔소리
쑹쑹쑹쑹

아빠의 지나친

애정표현

쑹쑹쑹쑹

언니의

짜증스런 사춘기

쑹쑹쑹쑹

아이쿠야,

나의 괴로움 가루

한 덩어리 나왔네!

[시현]

5반 원영서

다가온다
시현날이.

정말 떨린다.

영심히 공부해야지
잘해서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엄마가 칭찬해 주면 난 기쁘지.

[산모기를 조심합니다]

4반 김효주

여름철에 상에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모기는 약 45종 정도라고
합니다. 바람에 강한 산모기가 바람에 약한 짐모기에 비하여 야외 활동 하는 사람들을
공략하기가 더 쉽습니다.
산모기는 청바지를 뚫고 피를 빨 수도 있습니다. 산모기의 주둥이는 짐모기보다 길고
강합니다. 청바지를 입었을 때 앉아 있거나 하면 살과 맞닿아서 딱 달라붙어 있는 청바지
위에서 흡혈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짐모기와 산모기, 바닷가 모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짐모기 종류는 보통
몸길이가 5mm 정도이고 산모기는 6mm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닷가 모기는 7.5mm입니다.
크기의 차이가 있으니 주둥이의 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기가 피를 빨는데 쓰는 관은
아랫입술입니다. 그 주위에 1쌍의 아랫입술 수염이 있습니다. 바람 많고 험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산모기는 짐모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독성이
강하여 한번만 물려도 물린 부위가 통통 부어오르게 됩니다.
다가오는 여름 방학에는 산이나 바다에 놀러가게 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산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여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6반 안준식

통일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통일이 된다면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여러 나라를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알리고
노력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다.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은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되고 경제력 가치가 높아난다는 것이다.
또 인구 규모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사회강화와 불안 요소를
해소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을 슬프게 하는 이산 가족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관광자원은
물론 군사력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하나뿐인 민족 분단국가라는 수치를 씻어
낼 수 있다. 북한의 도발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외국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은 장점이 많은 것은 아니다. 우선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남북 분단
체제의 장기화로 인한 남북 갈등 증폭, 역악한 북한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주변 강대국의 이익 추구로 인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우리 국민의 세금이 2배 이상 올라 국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통일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
한다. 통일을 한 후 처음에는 고비가 있고 힘들겠지만 그 고비를 잘 넘긴다면 미래의 우리
나라는 아주 성장한 강대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잘 상의하고 양보하여 통일을 하고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시 하나의 국가가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



5학년 솜씨마당

["별일 없나구요?"를 보고 난 5학년 5반 친구들의 생각]

[사랑하는 부모님께~]

[반 윤서희]

엄마는 저를 위해 열심히 집안일을 하시고, 저는 학원 갈 때 귀찮다고,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물도 편찮으시고 힘드신데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덕분에 저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아빠는 늘 바쁘셔서 저의 학교생활을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매우 즐겁게, 재밌게 보내니다. 선생님, 친구들과 매우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보내니다.

담임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힘들었던 역사, 국어, 수학 공부가 이제 재밌습니다. 가끔씩은 장난도 치시는 꾸러기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매우 화달합니다. 그 덕분에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친구들이랑 매일 웃으면서 잘 어울려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저의 학교생활을 잘 모르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가끔 엄마도 힘들 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집안일도 거들고, 엄마 말씀도 잘 들도록 할게요. 매번 엄마가 심부름 시킬 때 짜증내고, 투덜거리는 버릇 고치도록 노력 할게요.

부모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딸~ 윤서희 올림

[교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6반 황경윤

작년 7월 3일에 방송된 KBS뉴스에서는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떤 사망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망사고의 원인은 바로 창문 밖 추락사고! 뉴스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학교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4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슬픔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통계(출처 : 학교안전공동체중앙회)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이 36.5%로 육체적 활동이 가장 많은 체육시간(28.4%)보다 더 높았습니다. 선생님과 항상 같이 있기 어려운 시간인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청소시간에 사고가 많았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선생님의 지도보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중시하는 우리 학생의 태도가 더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제가 우리 시흥신일초등학교에서 직접 본 사고를 바탕으로 교내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무엇이 있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복도에서 뛰어다니거나 술래잡기 등을 하는 어린이를 자주 보았습니다. 이렇게 복도나 교실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팔, 다리는 물론 머리, 치아 등 위험한 부위를 다칠 수 있고 심할 경우 평생 장애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단에서 2학년 오르거나 뛰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계단에서 넘어질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계단에서 난간을 타고 내려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상을 입게 되어 역으로 중심이 물리친 역으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간이 무너져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도서관 책장 사이에서 술래잡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다가 책장에 머리를 박거나 책장이 넘어져 팔리에 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교실에서 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뛰다가 넘어져 책상 모서리에 놓이나 머리를 배를 경우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큰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위험성 외에도, 장난을 치는 사람 외에 다른 친구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예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도에서 천천히 걷는다. 둘째, 계단 난간을 타고 내려가지 않는다. 셋째, 도서관에서는 절대 장난치지 않는다. 넷째, 계단은 난간을 잡고 한칸씩 오르거나 내린다. 다섯째, 교실이나 복도에서 절대 장난치지 않는다.

사소한 장난이지만 그 것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안전 규칙을 꼭 지키는 시흥신일 어린이가 됩시다.



5반 정문희 [팔통]



6반 우지수 [여름궁궐]



4반 옥건희 [바닷가]



5학년 솜씨마당

[6 25전쟁]

4반 김규태

며칠 후면 6월 25일이 된다. 전쟁이 끝난 지 이미 60여년이 지난 일이지만 민족의 비극 6 25전쟁에 궁금증이 생겨서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6 25전쟁의 진행된 순서들과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갑작스럽게 남한을 공격하여 6 25전쟁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국군은 3일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국토의 대부분을 점령당할 정도가 되었다. 이때 UN은 북한의 공격을 불복으로 여기고 남한을 도와주어 우리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전쟁중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죄없는 국민들까지 죽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로 노근리학살 사건이 있는데 미군이 피난을 돕겠다며 마을사람들을 노근리 쌍굴터널로 모아 수백 수천명의 총탄을 방사하여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 마을 사람들 중 간첩이 섞여있다는 이유때문이었다. 하지만 노인과 아이들도 다 억울하게 죽었고 또 아무 이유없이 죽은 사람들이 많아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학살이 전쟁중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니 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웠다. 또한 전쟁 중 피난을 왔다가 다시 군인으로 참여해 싸우다보니 자신의 형제들이나 자매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는 경우도 생겼다고 한다. 형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인지 안타까울 뿐이었고 나는 내 위로 누나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상황을 듣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이렇게 6 25전쟁속에서 여러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남한이 밀리고 있을 때, UN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북한이 점령한 인천에 대규모의 군대를 투입시키면서 상륙 작전에 성공하여 전쟁의 흐름은 남한과 UN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다시 힘을 얻은 우리의 국군과 UN군이 양쪽강 근처까지 진군했을 때 북한을 돕기 위한 중국군이 쳐들어와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서 국군과 UN군은 다시 남쪽으로 후퇴해야 했다. 다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6.25전쟁을 더 하고 싶지 않았던 미국의 당시 대통령 트루먼은 1951년 북한과 중국을 공격하자는 맥아더 장군을 해임시키고 중국과 휴전 협정을 하기 시작했다.

2년동안의 휴전 끝에 1953년 7월27일 휴전이 결정되었다. 이후 남북은 반으로 나뉘게 되어 지금 2014년까지 휴전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비극 전쟁은 끝이 났지만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다. 6.25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었던 우리 민족의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부분이다.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으셨던 우리 조상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또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5학년3반 아이들의 일기글모음]

2014.4.1. 강희진 '만우절'

오늘은 만우절이자 데이트가 들어오는 날이다. (ㅋㅋ) 사실 어제 5000메가를 다 썼다. 그래서 아까한데 혼났다. 이번에도 다 써야지~(ㅋㅋ)

→ 생담글 : 희진양은 완전 장난꾸러기구나.

2014.5.21. 심현태 '축구경기'

오늘 포동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뛰었다. 상대는 오류남 초등학교. 저번에 2:0 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1:0 으로 우리가 졌다. 잘하는 사람이 축구를 잡고 신임이 들어와서 일까.

다음번엔 고육 이겨야겠다.

→ 생담글 : 멋있게 질 줄도 알아야 승리의 기쁨이 더 커질거야.

2014.4.9. 최효준 '히연누님'

태권도학원에 새로 온 누나가 있다. 이름은 히연이고 나이는 25세이다. 그 누나는 필리핀에서 왔고 우리 동네에서 일을 해서 필리핀에 있는 부모님께 돈을 보낸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강동받았다.

→ 생담글 : 가족을 위해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겠구나. 효준이가 잘 도와 주렴.

2014.4.2. 홍서경 '똑같은 하루'

오늘도 (1)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랑 집에 가려는데, 친구가 땀을 심하게 다쳐서 친구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눈 다음 6시에 동생 데리러 가서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엄마가 와서 씻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이따고 잤다.

→ 생담글 :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2014.5.12.

오늘은 세은이의 생일이어서 학원 애들+강희진이랑 뽕방에 갔다. 남자애들은 뽕방에서 게임하거나 뽕방에 있던 친한 애들이랑 놀았고, 여자애들은 뽕방게임을 했다. 뽕방게임이란? 처음에는 다같이 '야싸 뽕상 everybody 뽕상'을 외친다. 그리고 처음 사람이 '야싸 너, 너'하며 손가락으로 두 사람을 지목한다. 지목된 사람들은 각자 한명씩 '야싸 너'하며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두 사람에게 동시에 지목된 사람은 '야싸 뽕상'이라고 하며 아무 행동이나 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everybody뽕상'이라고 외치며 그 행동을 따라한다. 다른 아이들과 놀아서 참 재미있었다.

→ 생담글 : 야싸 뽕상 게임이 그런 게임이었구나. 재미있겠다...

2014.6.2. 유성호

나는 오늘 신일초로 전학을 왔다. 5학년 3반 친구들이 재미있고 웃기다. 선생님이 착하고 재미있으시다. 난 신일초 축구부에 다닌다. 월요일은 체력훈련을 하는 날이다.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괜찮다. 축구선수가 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축구부 연습이 끝나고 햄버거, 바나나, 음료수를 먹고 집에 갔다.

→ 생담글 : 성호야~ 앞으로 즐겁게 학교생활 할 거야 ^^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 ('나쁜 어린이표'를 읽고)]

2반 민태민

사람들은 가끔씩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할 때가 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우리반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행동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결국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

<나쁜 어린이표>라는 책은 이런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다. 건우라는 아이가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여 잘못된 결과의 사고가 일어난다.

이 책을 그런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아이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말부터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반에 있는 몇몇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나도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책은 정말로 놀라운 책이다.



2반 박보경 [녹색세상]



1반 이현수 [수박]



3반 이세은 [스파이더걸]



6학년 숨씨마당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3반 최보경

수학여행을 경주로 가기위해 8시10분쯤에 출발하였다. 학교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경주를 향해 갔다. 잘가고 있다가 선생님께서 배가 아프셔서 휴게소를 다른 반보다 한번 더 휴게소를 갔다 왔다. 선생님 덕분에 휴게소를 한번 더 갔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점심시간 때문에 11시쯤에 휴게소에 도착해서 점심으로 김밥을 먹었다. 12시 까지 다시 버스로 모이기로 했다. 그전까지 휴게소에서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나서 버스를 탔다. 다시 출발한버스에서 친구들은 멀미 때문에 지루해서 잠든 친구들이 많았다. 계속 가고 있는데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휴게소를 다녀 온 후에 또 출발 했다. 나도 멀미 때문에 잠들었다. 40분 쯤 차를 타고 온 곳은 신라촌, 밀레니엄 파크에 가서 공연을 보고 자유시간을 받아서 놀고 드라마 선덕대왕 장소도 가보고 그 후에 말 공연도 봤다. 정말 재미있었다. 그리고 난 후에 버스를 타고 쯤 더 간 후에 우리가 3일 동안 지내야 하는 숙소에 도착하였다 숙소에서 들어가서 짐을 풀 후에 숙소에서 쉬고 있다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방밖에서 나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교관 선생님을 따라서 급식실로 갔다. 저녁으로 고기 등... 음식이 있어서 많이 퍼다 먹었다. 저녁밥이 정말로 맛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후에 숙소에 가서 있다가 8시쯤에 슬라이드 영상 강의를 봤다 경주에 관한 공부도 하고 난 후에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샤워도 하고 잘 준비를 하기 위해 이불도 깔고 점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점호가 다 끝난 후에 휴대폰을 걷고 신발장 위에 올려 놓은 다음에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난 후에 불을 끄고 다 같이 누운 다음에 잠자기 위해 노력했다. 낯설은 곳에 와서 익숙하지 않은 탓에 잠들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다시 아침은 우리를 향해 다가 왔다. 6시30분에 일어나서 씻고 이불을 개고 난 후에 아침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급식실에 가서 아침 밥을 먹었다 역시나 아침 밥도 맛있었다. 밥을 먹고 난 후에 옷을 갈아 입고 천마총에 가서 여러 가지 유품들도 보고난 후에 청성대 그림으로만 본 것을 진짜로 보게 대서 정말로 좋았다. 그런 후에 안양지에 가서 구경하고 난후에 경주박물관에 가서 신기한 물품들을 많이 보고 난 후에 점심식사를 위해 숙소를 와서 점심식사를 먹고 난 후에 신라역사관에 가서도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고난 후에 석굴암에 갔다가 숙소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난 후에 저녁을 먹으로 내려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레크레이션을 하러 강당을 갔다. 강당에 가니 처음 본 선생님이 있었다. 정말 그 선생님이 웃겼다 출 장기자랑도 보고 우리반과 협동을 해서 놀고 다 난후에 숙소에 올라가서 다시 씻고 점호를 끝내고 자유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고 난 후에 다시 방에 들어 와서 2시까지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잠들었다. 다시 시작된 아침, 아침에 세수도하고 이도 닦고 난 후에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불국사를 가기 전에 불국사에 관한 공부를 한 후에 불국사에 가서 불상을 보고 난 후에 점심식사를 먹고 밖에 가서 집을 챙겨서 버스를 타고 다시 신일로 갔다. 3일동안 경주에 유물을 많이 보고 온 것 같다. 정말 책에서 본 것을 실제로 다보고 와서 정말 좋았다.

[컴퓨터게임, 그 진실을 알고 싶다!]

1반 김나영

학생들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그것,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그것, 한 번하게 되면 머릿속을 꽉꽉 채우는 그것. 우리의 정신을 온통 휘저어 놓는 그것. 무엇일까요?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컴퓨터게임에 한 번 중독되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컴퓨터게임을 오래하게 되면 눈에 피로도 오고 시력도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폭력적인 게임을 장시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현실세계를 게임세계로 착각해서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일과 계획표를 세워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놀이거리를 만들어 하면 컴퓨터게임을 적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아지고, 독서를 하게 되면 글짓기 실력이 늘고 상상력이 풍부해 집니다. 컴퓨터게임은 건강의 적입니다. 운동을 해서 건강을 기르고 가족들 간의 대화를 늘리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게임을 줄이고 컴퓨터 게임으로 인한 사고를 줄입니다. !!!

[10분을위해]

4반 김지연

우리는 10분을위해
40분을 공부한다.
우리의 시선은 칠판보다
시계를 향해 가있다.

짜각짜각 움직이는
시계바늘 1분이 지나면
우리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또다시 시계바늘이
1분이 지나면 우리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40분이 지나고 종이치면
우리는 별떡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이처럼 우리는
10분을 위해 40분을
공부한다.

우리들에게 10분이란
떠돌고 놀기 충분한
시간.

하지만, 또 다시
종이치면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며
자리로 돌아간다.

또다시 시작된 공부
40분이 마치 1시간 같던
우리들의 공부.

이렇게 학교에 오면
공부보다 놀기위해
40분을 버티는 우리들

우리들은 10분을 위해
40분을 공부한다.



4반 정정현 [세과 치히로]



1반 김채윤 [정물화]



1반 정에서 [정물화]

6학년 숨씨마당

[헬렌 켈러를 읽고]

2반 김예원

며칠 전 학교에서 헬렌 켈러에 대해 공부하였다.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헬렌 켈러 위인전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았다. 이 책은 헬렌 켈러의 업적, 일생, 고난 등을 자세히 적어 놓았다. 그래서 책을 이해하기 쉬었다. 헬렌 켈러는 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후 19개월 만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열병을 앓고 청력과 시력을 모두 잃었다. 그러던 헬렌 켈러가 7살 때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고 난 후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설리번 선생님도 약간의 장애가 있었다. 장애를 극복하고 난 후 헬렌 켈러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평생 자신의 일생의 바쳐 일했다. 사실 헬렌 켈러가 말을 하게 된 진짜 계기는 1888년 퍼킨스 학교에 입학해 발성법을 배운 것이다. 그렇지만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는 퍼킨스 학교로 보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다.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한 후 많은 일을 했다. 말을 하게 되자 1년 만에 장애아 토미를 위해 모금을 하였으며 2차 세계 대전의 부상병을 구하는 운동을 펼쳤고 강연회도 열었다. 1900년에는 하버드 대학 부설 래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했고 영문학 부문에서 우등상을 받으며 졸업했다. 1903년 '레이디스 홈 저널'이라는 잡지에서는 헬렌 켈러의 업적들을 연재하였다. 1918년도에는 헬렌 켈러가 쓴 책이 영화화 되어 직접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30년 정도 뒤에는 <헬렌 켈러의 일기>가 출판되었으며, 1964년에는 미국 최고의 훈장인 '자유 메달'을 받았다. 헬렌 켈러는 8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헬렌 켈러를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알아보면 헬렌 켈러는 많은 일을 했고 배울 점이 매우 많은 사회 운동가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에 대해 제대로 알고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전시관 관람을 하고나서]

5반 양지원

버스와 지하철 5호선(광화문역)을 타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갔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역사를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설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1층에는 대한민국의 재벌계, 우리역사 보물창고, 특별전시 브라질과 한국 전시회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재벌계에서는 정칙'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우리역사 보물창고는 직접 만지고 발견하고 이해하면서 재밌게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활동지가 누리집에 있어 미리 출력해가 활동지를 보면서 전시물을 보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역사 보물창고는 1존, 2존, 3존, 나만의 역사탐구, 뮤직박스 코너로 되어 있었다. 주인공 민국이, 대하이, 유리와 함께 전시물에 담긴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체험실에는 대형 터치 스크린이 3개나 있어 게임을 할 수 있었다. 1존은 1920년~1940년대이며 일제강점기를 나타낸 유물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바로 옆에 청량리행 기차 모형이 있어 직접 타 볼 수도 있었다. 2존은 1950년~1970년대 사건과 물건들을 볼 수 있고 최초의 국산 경차 퍼블릭 카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3존은 1980년~현대 모습이고 88서울 올림픽 마스크트인 호돌이도 볼 수 있었다. 나만의 역사 탐구는 다섯 개의 작은 공간에서 우표, 옛날장난감, 옛날 문구용품, 대중문화 자료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다. 뮤직 박스는 통기타와 전축, 1960년~1970년대 음반으로 꾸며진 뮤직 박스에서 낭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관람하고 3층으로 올라갔다. 전시실은 총 4개가 있다. 3층, 4층, 5층 전시실은 1층 어린이 전시관에 비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다. 1전시실은 1876년~1945년대 일제 강점기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우리 민족들이 일본에 처참히 짓밟힌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올 뻔 했다. 2전시실은 1945년~1960년대이며 5학년 사회 시간에 배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4'19혁명, 6'25전쟁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3전시실은 1961년~1987년대 새마을운동, 자동차 포니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4전시실은 1988년~현재까지이며 최초의 휴대전화나 전자 제품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관람이 끝난 후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난 후 인사동에 갔다. 인사동에 '박물관이 살아있다' 전시회를 구경했다. 여러 가지 입체 그림으로 기발하고 재밌는 사진들을 많이 찍었다. 그리고 인사동에서 유명하다는 호떡과 뽕빵을 먹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통해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직접 보고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전시회는 나중에 친구들과 같이 와서 재밌는 사진을 더 많이 찍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



5반 김시온 [기와집]



3반 김정화 [풍경화]

